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연구위원	성 명	김은경
				선임연구위원		이수연
				연구원		김정수
				연구원		곽서희
				원외(전남대)		전명숙
출장기간	2013. 7. 24. (수) – 2013. 7. 27.(토)		출장지	베트남 하노이 시		
출장목적	○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의 분야별 정책 내용, 추진방향, 현황 발표 ○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 공유발표 ○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면담 및 심층토론					
경비부담	약 960 만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면담기관		면담자		주제		
Ministry of Labour, Invalids-Social Affairs (MOLISA) 노동사회보훈부		☐ Ms. Doan Thi Kim Thuy (양성평등부서) ☐ Ms. Nguyen Thi Hien (여성노동자 및 젠더부서)		☐ 양성평등법 이행과 성과 ☐ 양성평등과 여성노동현황		
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ILSSA) 노동사회연구소						
Institute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IFGS) 베트남여성가족연구소		☐ Mr. Nguyen Huu Minh (IFGS 소장) ☐ Ms. Tran Thi Cam Nhung (국제관계부)		☐ 베트남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현황 ☐ IFGS 연구주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Vietnam Women’s Union(VWU) 베트남여성연맹		☐ Ms. Dao Thi Vi Phuong (가족사회관계부) ☐ Ms. Tran Thi Anh Thu (국제관계부) ☐ Ms. Hoang Thu Ha (행정부)		☐ 양성평등과 가정폭력 ☐ 여성경제역량강화 ☐ 베트남 여성의 고위직 참여 증진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문화체육관광부		☐ Mr. Tran Van Thao (가족부서)		☐ 가정폭력 및 성차별폭력 방지정책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Ⅲ):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출장 복명서

베트남 여성정책세미나를 위한
2차 출장 보고서 (2013.7.24 - 7.27)

2013.08.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 제 개 발 협 력 팀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Ⅲ)

출장복명서

(베트남 여성정책세미나를 위한 2차출장)

I

출장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출장 배경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Ⅲ): 여성 정책 지식공유 기반 구축』은 아태지역 여성정책 관련 법·제도 기반과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해 아태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2013-2014년도 신규협력국가로 미얀마, 베트남을 선정함.

□ 출장 필요성

- 이전 1차 현지조사(2013년 4월 21일-26일)에서는 베트남의 현지 여성지위 현황 및 여성정책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금번 현지 베트남 정책세미나는 9월 개최 예정인 역량강화워크숍(9월 9일-13일)에 앞서 진행되는 여성정책 동향 및 수요파악을 위한 회의로, 현지 전문가의 정책발표와 한국 전문가의 분야별 지식공유와 토론으로 구성됨.

2

출장 목적 및 일정

□ 출장 목적

- 목적: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 다음 내용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 진행함.

가. 현지 여성정책 전문가의 분야별 정책 내용, 추진방향, 동향 발표
나.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다. 현지 여성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면담 및 심층토론

□ 일정, 장소 및 출장자:

- 일정: 2013.07.24 (수) – 07.27. (토) [2박4일]
- 장소: 베트남 하노이 시 Mercure Hanoi La Gare
- 출장자: 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김정수 연구원, 객서희 연구원,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세부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7/24 (수)	○ 김은경, 이수연, 김정수, 객서희, 전명숙(원외) 출발 (KE 679, 서울 19:30 → 하노이 22:05)		서울→ 하노이
7/25 (목)	09:30 -12:30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노동사회연구소(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 발표 및 심층토론: 1. Ms. Doan Thi Kim Thuy,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내 양성평등부 (주제: 베트남 5년간의 양성평등 이행과 성과) 2. Ms. Nguyen Thi Hien, 노동사회연구소(ILSSA) 내 여성노동자 및 젠더연구부서 연구원 (주제: 베트남 여성의 노동 현황과 양성평등) 3.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한국 양성평등과 경제적 발전)	하노이
	14:00 -16:30	<여성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and Gender Studies)> ○ 발표 및 심층토론: 1. Mr. Nguyen Huu Minh, IFGS 소장 (주제: 산업화, 현대화 시대 베트남여성의 지위향상 현황과 과제) 2. Ms. Tran Thi Cam Nhung, IFGS 연구원 (주제: IFGS 연구주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3. 김은경, KWDI 국제개발협력팀장 (주제: 한국 여성의 정치대표성 정책과 현황) 4. 발표: 김정수, KWDI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주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7/26 (금)	09:30 -12:30	<p><베트남 여성연맹 (Vietnam Women's Union)></p> <p>○ 발표 및 심층토론:</p> <p>1. Ms. Dao Thi Vi Phuong, 가족·사회관계부서 부팀장 (주제: 베트남 양성평등과 가정폭력)</p> <p>2. Ms. Tran Thi Anh Thu, 국제관계부서 부팀장 (주제: 여성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연맹의 이니셔티브 및 정책)</p> <p>3. Ms. Hoang Thu Ha, 행정부서 부팀장 (주제: 베트남 여성의 고위직 참여 증진: 법적 및 실제적 프레임워크)</p> <p>4.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한국 양성평등과 경제적 발전)</p>	하노이
	09:30 -12:30	<p><문화체육관광부(MOCST)></p> <p>○ 발표 및 심층토론:</p> <p>1. Mr. Tran Van Thao, 가족부 프로그램 매니저 (주제: 베트남 가정폭력 및 성차별폭력 방지정책)</p> <p>2. 발표: 이수연, KWDI 평등문화정책센터장 (주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현황)</p>	
	○ 김은경, 이수연, 김정수, 곽서희, 전명숙(원외) 귀국 (KE 680, 하노이 23:35 → 서울(+1))		
7/27 (토)	○ 귀국 (서울 05:50)		하노이 →서울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09:30-12:30>

1. 노동보훈사회부 내 양성평등부(Gender Equality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및
노동사회연구소(Institute of Labour Science and Social Affairs, ILSSA)

● 발표주제: 베트남 양성평등법 5년간의 이행과 성과

발표자: Ms. Doan Thi Kim Thuy, 양성평등부 사무관, MOLISA

● 발표주제: 베트남 여성의 노동 현황과 양성평등

발표자: Ms. Nguyen Thi Hien, 여성노동 및 젠더학부서 연구원, ILSSA

● 발표주제: 한국 양성평등과 경제적 발전

발표자: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발표주요내용:

- 2011년 기준 한국 노동시장 참여율은 남성 73.1%, 여성 49.7% 정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여성의 노동참여는 25-29세에 가장 높아졌다가(약 69.8%)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다시 하락한 후(50%후반) 40-44세 이후 다시 증가(65.9%)하는 추세를 나타냄. OECD 타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여성 경제참여율은 2000-2010년간 OECD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OECD 전체평균 29.6%보다 약간 높은 30.1%를 기록함(2007년 자료).
-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중 대학교(college) 64.9%, 대학교 및 대학원(university and higher) 62%를 차지함. 그리고 500명이상 근로자가 상주하는 기업에서 일반 직원급은 여성이 39.5%를 차지한 반면 관리자는 14.6%, 경영진 6.8%에 그침.
- 한국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후 2005년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008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다양한 법 제정 정비 및 개선을 실시해오고 있음.
이 밖에도 여성개발센터 설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등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한국 역시 해결해나가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있음. 먼저 2005년까지는 50%를 상회하던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최근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음. 그리고 고

학력여성들이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저임금, 보다 낮은수준의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마지막으로 임금격차인데,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63.9%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비공식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정부는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여성관리자 비율 향상, 여성 창업자 및 기업인 육성, 여성친화 근로지 및 근로환경 조성,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제 도입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14:00-16:30>

2. 여성가족연구소(Institute for Family and Gender Studies)

● 발표주제: 산업화, 현대화 시대 베트남여성의 지위향상 현황과 과제

발표자: Mr. Nguyen Huu Minh, IFGS소장

● 발표주제: IFGS 연구주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자: Ms. Tran Thi Cam Nhung, IFGS 연구원

● 발표주제: 한국 여성의 정치대표성 정책과 현황

발표자: 김은경, KWDI 국제개발협력팀장

발표주요내용:

- 한국은 현재 19대 국회의원 300명중 여성은 47명으로, 약 15.6%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의 경우 21.6%, 광역의회의 경우 14.8%임. 여성장관은 2명으로 11.8%이며 공공기관 42.7% 여성이나 관리자 및 의사결정직 여성은 7.3%를 기록하고 있음.
- 여성공천할당제(gender quota system)를 도입한 이후, 16대 국회의원 후보 32명, 17대 91명으로 증가하였고 공천리스트에서도 여성비율이 증가함. 모든 홀수는 여성후보자로, 50%이며 여성쿼터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경우 남녀가 번갈아 공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쿼터제 도입 이후 여성의원의 입법 제안도 약 10배정도 증가함. 더불어 쿼터제 도입 이후 여성의 권익 및 정책관련 입법 수도 증가함.
- 2010년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가 21.6%(625명), 광역의회가 14.8%(113명)이며 특히 비례대표로 선발된 여성은 351명을 기록함.
- 한국에서 여성공천할당제를 실현시키는데 여성운동, 정당 내 여성그룹, 여성 정치기관 등이 협력력이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주요 3대 주체라고 볼 수 있음.
-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관련 정당법은 2000년과 2002년 비례대표에 30%, 2004년 50%의 여성공천할당이 의무화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지방의회 지역구 30%이상 권고사항(보조금지급), 2004년부터는 국회 지역구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이상(보조금지급)으로 개정되는 등 변화되어옴.
-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를 노력사항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이행한 정당에 일종의 동기부여이자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됨. 또한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된 여성정치인발전기금(Women Political Development Fund)이 운영 중으로, 이는 차세대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 선거홍보 및 정당운동을 위한 지원금임. 하지만 여성정치인발굴이라는 본래 목적에 활용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앞으로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이 보다 발전된 여성공천할당제로 진일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와 여성공천할당제 시행간 연계, 여성정치인 간 혹은 여성운동 간 유대강화 등의 시사점을 갖고 있음.

● 발표주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체계화

발표자: 김정수, KWDI 국제개발협력팀 연구원

발표주요내용:

- KWDI는 처음으로 여성발전 경험을 리드, 체계화하여 협력국과의 공유를 도모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함. 한국의 사회발전 속 여성발전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책대화, 워크숍, 국제회의 등에서 향후 협력국과 지식공유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의 젠더관련 ODA 프로젝트 발굴에 기여하고자 추진됨.
- 2012-2013 9개가 진행되어 올해 출판예정이며, 2013-2014년 8개, 2014-2015 8개 주제별 체계화 작업이 진행 및 예정되어있음.
- 2012-2013년 진행된 발전경험체계화 주제로는 여성정치교육훈련사업, 여성새마을운동(새마을부녀회 소득증대사업),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법·제도 인프라강화(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 ‘여성의전화’ 설립과 운영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설립된 성매매방지종합정책 추진기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경험, 공무원성인지교육, 여성연구전문기관 KWDI설립사례, 대학 내 여성학 육성을 통한 지식보급 및 전문가양성사업, 가족계획사업이 있음.



<2013년 7월 26일 금요일, 09:30-12:30>

3. 베트남 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 발표주제: 양성평등과 가정폭력

발표자: Ms. Dao Thi Vi Phuong, 가족·사회관계부서 부팀장

- 발표주제: 여성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연맹의 이니셔티브 및 정책

발표자: Ms. Tran Thi Ahn Thu, 국제관계부서 부팀장

- 발표주제: 베트남 여성의 고위직 참여 증진: 법적 및 실제적 프레임워크

발표자: Ms. Hoang Thu Ha, 행정부 부팀장

- 발표주제: 한국 양성평등과 경제적 발전

발표자: 전명숙,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3년 7월 26일 금요일, 14:00-16:30>

4. 문화체육관광부 내 가족부(Family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CST))

- 발표주제: 베트남 가정폭력 및 성차별폭력 방지정책

발표자: Mr. Tran Van Thao, 가족부 프로그램매니저

- 발표주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

발표자: 이수연, KWDI 평등문화정책센터장

발표주요내용:

- 한국에서 성폭력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는 사건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의 증가로 인해 신고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여성폭력에 대한 법들은 주로 여성단체들의 주도에 의해 제정되어왔고, 관련 법으로는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평등고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음.
- 한국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음.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8-2012)에 따라 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조사지원 등 기존의 피해자 지원서비스들이 원스탑 지원센터로 통합되도록 하였음.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음.
-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음. 지역사회와의 협력, 놀이터/공원/학교에 CCTV 설치, 아동보호기관 지정운영, 은퇴한 노년층의 참여, 학교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5년부터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센터가 운영되어 법적, 의료적, 정신적 지원을 한번에 제공하고 있음.
-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오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문화에 의해 재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친고죄가 폐지된 바 있음. 1997년에 마련된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가정폭력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 시민권이 2년 간 없어 가정폭력을 겪을 경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운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한 바 있음.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18개 쉼터가 설치되어 필요한 의료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 더불어 2006년부터는 이주여성을 위해 1366 상담전화를 8개 외국어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결혼 이주여성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